

현장예배 재개한 남가주 한인교회 ‘안전’ 최우선 고려

“철저한 방역대책 마련하고 지역사회 보호 위해 노력하겠다”

지난 8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주내 대부분의 카운티가 ‘이동 제한령’을 완화하고 재개방을 허락한 가운데, 한인교회들도 발 빠르게 현장예배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정상화 3단계에 돌입한 LA 카운티는 실내 정원의 25% 또는 최대 100명 이하 중 적은 수로 종교 관련 모임을 갖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가주 각 한인교회는 ‘현장 예배와 모임이 코로나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성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배 정상화에 본격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현장예배 재개에 앞서 성도들의 안전을 고려한 수칙 마련을 우선에 두고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주일 현장예배를 시작한 남가주 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는 1부, 2부, 4부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한 현장예배로 재

개했으며, 3부 예배도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각 예배 참석인원은 신청을 통해 100명으로 제한하고 현장예배 참석자들에게는 발열체크 및 사회적 거리 유지, 손 세정제 사용, 마스크 착용 등이 요구됐다. 또 해외방문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어린이 및 기저질환, 발열증상자는 2주간 온라인 예배를 권고했다.

박성근 목사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현장예배를 재개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코로나 사태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임과 동시에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7일부터 현장예배를 시작한 토렌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는 현장 예배 재개 3단계 계획을 발표하고 현 1단계에서 한어 장년 주일, 영어 장년 주일, 중

고등부 주일 예배를 열었다. 2단계에서는 유. 초등부 주일, 한어 청년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위치한 남가주사랑의교회는 주정부로부터 현장예배 재개가 허락됐지만 철저한 안전수칙 마련을 위해 오는 28일 주일부터 현장예배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일, 수요일예배를 3단계에서는 영. 유아부 주일, 사랑부 주일, 새벽기도회를 재개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현장예배를 시작한 웨스트힐장로교회(담임 오명찬 목사)는 ‘10대 필수 안전수칙’을 만들고 예배의 정상화를 향한 로드맵을 만들기도 했다.

오명찬 목사는 “예배당에 모여서

공동체로 이전처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직 코로나 백신이 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에 점차적으로 예배의 정상화를 갖춰가는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예배 정상화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1일부터 현장예배를 시작하는 엘바인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배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발열 확인과 손 소독을 거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며, 예배당 입장부터 퇴장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지키도록 했다.

김한요 목사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장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권고사항보다 더 철저한 방역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보호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리고 유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 LA 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가 오는 6월 말 또는 7월 초 현장예배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남가주 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28일부터 주일 1-4부 예배를 현장예배로 드릴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美 복음주의 신학자들 “인종차별은 성경과 반대” 성명



남침례신학교 노트 홀.

수십명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인종차별주의는 복음주의와 반대된다고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또 이들은 복음주의 역사 전체에 존재했던 인종차별주의의 현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이 성명에 포함했다. 이 매체는 전했다.

“복음과 인종차별에 관한 새로운 복음주의 선언문”이라는 제목의 성명은 최근 미네소타 주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후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미 전역에서 이어지면서 발표했다.

성명은 “현재 상황에 성명 이상의 것이 필요하지만 복음주의 학자적 입장에서 인종차별이 성경과 복음에 반대한다고 천명한다”고 밝혔다.

기독교 교육 국제 연맹 데이비드 도커리(David Dockery) 회장에 따르면 이 성명은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회원들이 작성했다.

지난 1949년 설립된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는 신학적 사고와 연구에 전념하는 학자, 교사, 목회자 및 학생들로 이루어진 전문 협회다.

성명서는 “복음주의 역사에는 노예 무역 폐지론자 윌리엄 윌버포스

(William Wilberforce)와 같은 정의를 위한 긍정적인 인물들도 포함되지만 또한 부정적이고 부당한 시대 문화의 가치에 동화한 인물들도 포함된다”면서 “선교적인 노력은 우리 자신의 삶을 비롯해 단체, 교회 및 지역 사회에서 복음에 따라 듣고, 슬퍼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최근의 사건을 애도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지만 그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복음은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있으며 따라서 복음주의자들

도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고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서는 복음주의 신학 협회(ETS) 회장을 비롯해 애즈버리(Asbury) 신학교 성경 신학 연구 교수 크레이그 키너(Craig Keener), 남침례 신학교 교수 그레그 엘리스(Gregg Allison), 남침례신학교 총장 앨 몰러(AI Mohler) 등이 서명했다.

남침례신학교는 지난 2018년 학교의 인종 차별 역사와 과거 노예제 지원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앨 몰러 총장은 “완전한 탄식과 함께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자”고 촉구했다. 이미경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저파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NCKPC, 코로나 재난 후원금 총 6만5000달러 모금



NCKPC(총회장 최병호 목사)가 코로나19 재난 후원금으로 총 6만5000달러를 모금, 최근 어려운 교회들에 지원금 배분을 완료했다.

NCKPC는 지난 2개월 동안 팬데믹 재난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인 모금을 진행해 왔다.

구체적인 모금 내역은 NCKPC 총회 연기와 긴급재정으로 만들어진 여유 자금 2만5000달러, NCKPC 여선교회 1만5000달러, 휴스턴한인중앙장로교회(이재호 목사) 1만 달러, 시

애틀 형제교회(권준 목사) 1만 달러, 아틀란타 베다니장로교회(최병호 목사) 1만 달러, 클리블랜드 한인중앙장로교회(김성택 목사) 2천 달러 등이다.

NCKPC는 이 중 2만5000달러를 교단 내 5개 민족인 아메리카 원주민, 아시안, 히스패닉, 중동, 흑인 그룹에 5000달러씩 지원했고 나머지 4만 달러는 산하 회원교회 중 주일예배 참석이 50명 이하인 곳 19개를 선정해 전달했고, NCKPC 협력선교사 한 명에게 2000달러를 후원했다.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1만5000달러가 모금됨에 따라 현재 NCKPC는 예배인원 50명 이하의 교회들의 재난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NCKPC에 따르면 마이애미 한인장로교회에서 1만 달러, NCKPC 남선교회에서 5000 달러를 추가로 후원했다. 특히 남선교회에서는 30-40대의 젊은 목회자가 시무하시는 교회를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재난 지원금 신청은 6월 30일까지다.

김대원 기자

美 연방대법원 다카(DACA) 유지 판결 한인 사회 커뮤니티 지원 단체 환영



미국 연방 대법원, 연방대법원은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이 위법하다고 제기한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pixabay

연방대법원은 18일,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이 위법하다고 제기한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해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다(arbitrary and capricious)"라며 "다카 프로그램의 건전성 여부를 떠나, 이후 미질 여파를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한인 사회 커뮤니티 지원 단체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자들의 권익을 대변해 온 LA 지역 한인 비영리단체 민족학교(대표 김동조)는 "그동안 다카 수혜자들은 법원 결정에 가슴 졸여야 했다. 이에 민족학교는 다카 수혜자 65만 명을 비롯해 한인 수혜자 7000여 명을 보호하기 위해 다카 시민권 부여 캠페인, 다카 청년 및 부모 조직 활동 등을 벌이는 한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다카 무료 갭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하고 있었다. 또 여러

고 있다. 이들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족학교 김동조 대표는 "다카 수혜자 3명 중 한 명은 5세 이전에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어 사실상 미국 시스템 속에서 자란 미국의 자녀"라며 "그들 중 무려 54만여명이 헬스케어, 식품 유통업 등 필수 사업장에서 현재 일하고 있다. 이들이 영주권이 나 시민권을 받으면 우리 커뮤니티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권익도堂堂하게 주장할 수 있다.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 수혜자이자 민족학교 청년 조직 매니저 에릭 양은 "대법원에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가 많아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다. 나 역시 다카 수혜자로 일단 한숨을 놓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족학교와 라티노 단체 치틀라(CHIRLA) 등은 LA 맥아더 앞 시위 등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투쟁해 왔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밝은 미래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이들은 여전히 불안한 신분 때문에 추방 공포에 떨

메릴랜드 벤엘교회 설립 41주년 기념해 총 24,500달러 장학금 전달



백선중 목사

메릴랜드에 위치한 벤엘교회(담임 백선중 목사)는 지난 14일, 교회 설립 41주년 기념 주일을 맞아 지난

해에 이어 여러 지역에서 학업을 감당하고 있는 18명의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신학대학원생들에게 총 24,5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선정된 장학금 수여자들에게는 장학금과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우편으로 발송됐다.

벤엘교회 장학위원회는 한 달간 온라인 접수 기간을 거쳐 지원자들이 제출한 에세이, 학업성적, 지역사회와 교회 내 봉사활동, 장래 계획 그리고 재정적 필요에 관한 서류들을 심사한 후 당회의 최종 승

인을 거쳐 수여자를 선정했다. 멜핀(MELLFIN)이라는 메릴랜드 지역의 장학재단 활동에 교회 장학위원회 위원이 참여해 장학금 선발과 수여 과정에 함께 하기도 했다.

벤엘교회 장학위원회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장학금이 더욱 절실히 필요할 학생들을 생각하며 섬기고자 했다"며 "전례 없는 비대면으로 이뤄진 올해 장학위원회의 활동은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장학위원회 위원들 전원이 '이번 장학금 수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이웃 사랑의 실천'임을 동의하며 기쁨 가운데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자들의 에세이를 읽으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 벤엘교회의 장학 사역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벤엘교회는 지난 5월, 코로나 사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지역 사회의 소규모 교회들을 돕고자 메릴랜드 한인교회 협의회(회장 임병문 목사)에 2000달러를 전달한데 이어, 한 달간 모여진 "작은 교회를 위한 지정 헌금"을 통해 메릴랜드 한인교회 협의회에 13,066달러를 전달했다.

벤엘교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러진 성도들의 헌금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의 작은 교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한다"며 "동시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고 격려하는 사랑의 연쇄작용이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벤엘교회는 시니어 케어 패키지 제작 및 배달, 지역 사회의 학생들을 위한 콜롬비아 커뮤니티 케어(Columbia Community Care),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직장을 잃거나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과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을 돌보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L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안내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1년 \$500)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별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한국 선교의 대부(代父), 고(故) 조동진(David Cho) 목사님을 추모(追慕)하며”

존경하옵는 고(故) 조동진(David Cho) 목사님은 한국 선교의 대부요, 누구나 인정하는 한국선교의 탁월(卓越)한 선교 동원자 이셨습니다. 저와의 인연은 1991년 7월 동서선교 연구개발원(EWC) 하기선교대학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조동진 목사님의 배려로 1992년 2월 국제협력개발기구(KIM)에 입소, MIT 석사 과정을 저와 아내, 그리고 다른 한 가정과 함께 도제(徒弟) 선교교육을 직접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선교학(Missiology)의 걸어 다니는 대 백과사전이라는 명성(名聲)과 같이 엄청난 선교 지식과 그분의 영성(靈性)을 직접 접하는 행복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조동진 박사님은 저에게 있어 1991년 이후 약 29년 동안, 서구(西歐), 백인 중심이 아닌 제3 세계 선교 운동과 저의 모든 선교 이론(理論) 및 그 실천의 모체(母體)가 된 선교사역의 대 스승이었습니다.

특히 2012년 KWMC 시카고 휘튼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셋째 날,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저를 불러 세우시며, “김 선교사! 내가 김 목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어...” 이 말씀에 저는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큰 감동(感動)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제가 2005년 전세계 한인선교사 대표로인한 한인세계선교사회(KWWMF) 중앙아시아 회장으로 재직시, 태국 방콕에서 주최한 제1회 중앙아시아 이슬람권 “실크로드 포럼”(Silk Road Forum)을 할당 앞두고, 급히 조동진 원장님께 연락을 드려, 포럼의 취지를 보고 드리면서 축사의 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기뻐하시면서 “현장 선교사들이 주최를 하는 최초의 학술 포럼이라 하시면서 항상 선교사들이 선교 학자들의 이론을 듣기만 했는데, 어떻게 선교사들이 직접 선교 현장을 리서치와 대안, 그리고 논문을 써, 발제 할 생각을 했느냐” 하시며 저를 크게 치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자신께서 바쁘고, 몸이 불편하지만 선교사 발제 논문에 대한 논찬과 더불어 “실크로드 천년의 역사와 시대상황”을 그 짧은 시간에 직접 논문을 써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그 역사적 현장에 꼭 참석, 격려 해주시겠다 하시면서, 친히 방콕까지 오셨습니다. 그 한 순간에 포럼(Silk Road Forum)의 격이 격상되는 경이(驚異)로운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선교협의회(AMA)와 제3 세계선교협의회(EWC) 창설, 주도하신 제 3세계 선교의 대표적 지도

자이시며, 한국선교의 대부되시는 조동진 박사, 당대 최고의 이슬람 선교학자이신 전호진, 전재욱 박사과 선교 목회적인 사역을 하는 박중순, 황성주 목사, 저의 총신 은사이신 신성중 박사, 클리브랜드 주립대 경제학 교수 이준환 박사, 한국전문인선교단체 김태연 회장, 기독교인문협회 회장 조효근 목사, 그리고 약 30명 이상의 이슬람권 중앙아시아 15년차 이상 시니어 선교사들과 선교단체장 및 선교 전문가들이 대거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KWWMF 중앙아시아 주최 2005, 2006년도 제1, 2차 방콕 실크로드 포럼(Silk Road Forum) 참석자 대부분이 현재, 한국 선교의 각단체장과 교단 실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역임했거나 맡고 계십니다. 또한 CTS 기독교TV에서 제1회 “실크로드 포럼”을 날마다 취재하며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특히 이준환 박사의 강의, 미국의 경제 대란(大亂)을 예견하며 선교의 자비방에 대한 대비(對備)를 촉구...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조동진 목사님께서 3박 4일 포럼 기간 동안 개최예배부터 새벽 경건회는 물론 후배들의 발제와 모든 순서에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전부 참석하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대 학자께서 팔순을 넘긴 연세에도 불구하고,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의 프로그램들... 그것도 제일 앞자리에서 좌정하시며 경청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불멸(不滅)의 존재로 빛나는 장엄한 감동이었습니다. 그 효과로 포럼 사상 참석자 전원이 3박 4일동안 단 한 분도 불참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한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2020년 현재, 전 세계 오대양 육대주 한인선교사 3만명 시대를 맞이한 한국 선교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께의 찬양과 감사로 관건적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축복된 한국선교 운동의 확산과 발전 중심에 지대한 공헌(貢獻)을 하신 분이 바로 제3세계 선교 운동을 주도(主導)하신 조동진 박사님이십니다. 그는 선견적(先見)의 선교의 사명(使命)을 가지고 착박한 선교의 불모지(不毛地)인 제3세계 한국에서, 열과 성을 다해 초창기 한

인선교사들을 훈련시켰으며 국제협력개발기구(KIM) 창설, 선교사 파송에 전심전력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한국선교 세계화의 발판과 큰 동기 부여가 되었고,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한 폭발적 한인선교사 파송에 절대적 기여를 하신 것입니다.

특히, 북미주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를 통한 한인세계선교대회와 32년 이민한인교회 선교역사에 있어 큰 이정표(里程碑)와 기폭제(起爆劑) 역할을 감당했다고 사료(史料)됩니다.

1988년 제1회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가 미국 시카고 휘튼 칼리지(Wheaton College) 빌리 그래함 센터(Billy Graham Center)에서 개최됩니다. 그 한인세계선교대회의 모체(母體)이 된 약 180명의 전세계 파송 한인선교사들과 북미주 이민한인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I am sending you, 요 20:21)는 주제로 함께 윈윈(Win Win)하게 됩니다. 즉, 서구(西歐), 백인 중심의 선교가 아닌, 제3세계에 속한 한민족(韓民族)을 통한 세계선교의 장엄한 대 역사의 서막(序幕)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2천년 세계선교 역사상, 이민 온민족이 각지, 타국(他國)에서 세계선교대회를, 그것도 자체 한인들만을 대상으로 매머드(Mammoth)급 선교대회 개최는 최초(最初)의 사례이며, 특히 매 4년마다 개최되어 32년 동안 지속(持續)되었다는 그 자체로 기적(奇蹟)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민족의 영광이고, 모든 북미주 이민한인교회들의 큰 열매입니다. 또한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의 존재(存在) 목적(目的)이며 그 자부심(自負心)인 것입니다.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4박 5일)는 제1차부터 제8차까지 첫째, 매 4년마다 전세계 5대양 6대주 파송(派送) 5년차 이상, 그러나 대부분 각 지역 대표 시니어 (senior) 한인선교사들(약 500-1,200명)과 미주한인교회 지도자들(약 2,500-3,500명), 1.5-2세 한인 청년들(약 500-1,000명), 전체 평균 4-5천명이 참석한 대회였습니다.

주최측 KWMC는 대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최첨단(最尖端) 선

교 정보와 이론, 재 헌신(獻身)을 유도한 최고의 선교 재교육 현장을 제공했습니다. 대회 주 강사(講士)들로 참여한 21세기 동, 서양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선교학자 조동진(David Cho), 랄프 윈터(Ralph D. Winter), 루이스 부시(Luis Bush),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로렌 커닝햄(Loren Cunningham), 토마스 왕(Thomas Wang), 폴 애일만(Paul Eshleman), 존 스미스(John Smith), 토드 존슨(Todd E. Johnson), 존 파이퍼(John Piper), 강승삼 박사 등... 또한 대한민국과 이민교회를 대표하는 대부분 선교학자들과 신학교 교수 및 목사들의 100-200개 이상 개설된 다양한 세미나의 강사와 특강, 그리고 성령충만한 말씀 선포 속에서, 세계선교 동향(動向)의 최첨단 시대적 조류(潮流)와 사조(思潮), 그리고 역동성(力動性)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현장 선교 동원 전문가들의 탁월한 선교 전략(戰略) 제시와 전 세계 오대양 육대주에서 흠어져 복음의 야성(野性)으로 충만한 야전 사령관인 선교사들의 생생한 승리의 현장 보고, 그리고 열정적 기도(祈禱) 운동은 대회에 참석한 모든 한인선교 지도자들과 선교 현장(現場) 시니어 선교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선교사적 야성과 자존감 회복의 힐링(healing)이었습니다. 즉, 타오르는 소명의 열기로 충만한 은혜와 사랑, 헌신의 용광로(鎔鑪)가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미주한인교회 지도자들과 청년들은 선교대회 기간 중, 큰 선교 도전과 비전 활성화(活性化)를 통한 세계선교의 동역화와 선교 헌신자들로 대거 발굴(發掘)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의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로 말미암아, 1988년을 기점으로 21세기 초 미주 한인교회들의 폭발적 성장의 직, 간접적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에 고무된 한국과 미국 한인선교단체들과 한인 교단 및 이민한인교회들은 적극적으로 장기 선교사를 후원하여 선교지로 파송했으며, 특히 북미주 전역에 단기선교 활성화를 폭풍 확대시킨, 그 유래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 예수서원 총무 김경일 목사(D. Miss)

(由來)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 구령(救靈)의 역사적 제3세계 선교 운동이었다고 객관적(客觀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心臟)을 가진 복음의 증인(證人:1:8)인 우리 모두는 존경하옵는 하나님의 사람(Man of God) 고(故) 조동진 목사님을 추모(追慕)하며, 그가 상수(上壽, 100세)에 조금 못 미친 97세를 맞도록, 초지일관(初志一貫) 평생 속원사역으로 펼친, 아니 능행하신 하나님의 지상 대 명령인 지구촌 복음화의 미완성 과업(Unfinished Task of Global Evangelization)의 완결(完結),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다시 한번 전심전력(全心全力)할 것을 다짐해 보는 계기(契機)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Pandemic, 汎流行)으로 말미암아 현재, 완전정체(沈滯)된 북미주 4,500개 모든 이민한인교회들과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를 비롯한 모든 미주선교단체들은 초대교회적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세계선교의 대사명(Great Commission)의 재 활성화와 연합(聯合), 그리고 성령충만, 대각성(大覺醒) 운동으로 다시 불타오르기를 간곡히 소원하며 대망(待望)합니다.

감사합니다.마라나타! (Maranatha!)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늘 외면하지 않았다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양륙(에수전도인), 주선애교수(정신대 명예교수), 이윤희교수(에수전도인), 송정영목사(복음전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주말미주대), 신정원목사(복음전대 대표), 유관지목사(통일포럼대표),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박성열 목사 책의 편자

• 영인 책은 어떤 면책료도 부담할 수 없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된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복한 김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아성도들의 순교증언으로 지독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명: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독서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 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이벤트에는 무슨 차도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싶어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저희 "심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문의 1-877-580-2424 상류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참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참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참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 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63

“미주 목회자 선교 협의회의 동영상 월드미션 예배”

필자가 섬기는 인터콥 인터내셔널 선교단체를 격려하고 후원하기 위해 미주의 목회자들이 세운 모임이 “미주 목회자 선교 협의회(이하 목선협)”이다. 지난 2017년 2월 뉴욕 목양교회에서 약 60여 명의 지도목사들이 인터콥 국제 대표인 최바울 선교사와 이사들과 함께 세웠다. 이 선교단체에서는 각 지역의 목회자들 중 “비전스쿨”을 수료하고 “단기선교(F.O)”를 다녀온 후 선교 사명자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목회자들을 선입해서 “지도목사”로 위촉하여 각 지부 사역자들을 돕고 바르게 인도하도록 격려한다. 지도목사들이 미주에 약 80명 정도 된다. 목선협의 목적은 열방 선교부흥의 꿈을 갖고 열심히 사역하는 북미주 48개 지부의 일반인 선교 동역자들을 후원하고 또한 선교에 협력하면서 한편 후속 분할 수 있는 사교나 잘못된 사안들을 바로 잡아 주는 것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 선교단체에 대한 선입견이나 부정적 오해에 대해 변호하고 홍보하기 위한 뜻으로 자생적으로 세워졌다. 각 지역별로 지도목사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었으나 목사들만의 별도 모임이 없던 차에 “목선협”이 세워져서 목사들 상호 간에 좋은 영적 네트워크가 생겨 모두에게 서로 힘이 되었다. 그렇게 매년 선교캠프가 열리면 그 시간 중에 목선협 모임을 두고 일 년에 한 번이라도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제하고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기대하며 기쁘게 참여하곤 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목회자 연합 월드미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인터넷 시스템이니 모시고 싶은 강사 선교사도 계신 그 사역지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좋았고, 순서 맡은 목사들도 한 분은 동부, 한 분은 서부 등 어느 곳에서든지 그 시간에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뻐했다. 약 100여 명의 전미주 지도목사들이 선교부흥의 꿈을 갖고 함께하며 선교지 소식을 듣고 선교사 강의를 들으며, 같이 찬양하고, 합심 기도하며 은혜의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갔다.

모니터 화면에 비친 100여 명의 얼굴들을 서로 바라보며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마음만은 더 깊은 사귄다고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에틀란타의 목사님 한분이 지난 월드미션을 마치고 필자에게 연락을 해왔다. “목사님! 우리 지역 같은데서는 지도목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 그간 한 번도 이런 예배를 못 드렸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니 가슴이 풀리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하네요. 더 자주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여 “미주 목회자 동영상 연합 월드미션”을 매달 한 번씩 갖기로 하였다.

6월 월드미션은 6월 29일(월) 서부 시간 오후 4시에 시작한다. 찬양으로 예배를 올리고 미전도종족 중 한 종족의 ‘종족 셀링’을 하고, 이번 달에는 인터콥 본부장인 최바울 선교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한다. 우리 전체 지도 목사들을 대표하여 현재 인터콥 KSI(국제학교) 이사장이신 타코마중앙장로교회 담임 이형석 목사가 환영사를 전한다. 그리고 지역별로 목사들의 교제가 이어진다. 같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연합 월드미션은 선교부흥의 꿈을 이루어 갈 것이다. “너희는 가서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교회의 지상 대명령을 위해 우리 목선협 공동체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의: 텔레 ID@sanghoon1040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무기를 내려놓으라!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전쟁의 현장과 전쟁과 관련된 부수적 사건들을 작품의 소재로 삼는 문학이 전쟁 문학입니다. 전쟁 문학은 전쟁의 극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위, 실존적 고민, 이념의 갈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그려냅니다. 그래서 전쟁문학은 특별한 의도를 나타내지 않아도 반전, 평화운동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전쟁문학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오스트리아의 평화운동가 베르타 폰 주트너의 소설 “무기를 내려놓으라!”입니다. 이 작품을 빼놓고 전쟁문학을 논할 수 없을 만큼 대표적인 전쟁문학 작품입니다. 주트너 여사는 전쟁문학을 통한 반전운동을 펼친 평화운동가입니다. 주트너는 이 작품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군국주의자들의 전쟁들을 반대했고, 평화의 필요성을 외쳤습니다. 그 공로로 주트너는 1905년 여성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주트너여사는 제국주의 열풍으로 유럽에 전쟁이 성행했던 19세기 후반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럽에는 전쟁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정치의 정당화 수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전쟁이 미화되는 시대였습니다. 아울러 모두가 전쟁의 불가피성을 합당화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주트너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전쟁의 파괴력과 잔인성을 보고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전쟁의 실상을 생생히 전함으로 전쟁의 무의미함을 일깨울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사와 보고문을 꼼꼼히 연구하고, 목격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등 전쟁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리고 자신의 소설에서 전장의 잔학성과 그 폐해를 생생히 묘사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마르타 알트하우스는 오스트리아의 부유한 귀족 집안 장녀입니다. 퇴역 장군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전쟁을 숭배하는 숙녀로 성장했습니다. 마르타는 스무 살에 군인인 첫 남편 아르노도츠키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1859년 이탈리아와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미망인이 된 마르타는 빈을 떠나 은둔생활을 하며 폭넓은 독서를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공허함을 깨닫고 반전 평화운동가로 거듭납니다. 4년 뒤 마르타는 군인이면서도 전쟁의 무의미함에 공감하는 프리드리히 폰 킬링이라는 오스트리아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남편 프리드리히는 전쟁에 반대하면서도 군인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쟁에 참전해 전쟁을 체험합니다.

주트너는 군인가족 마르타 알트하우스라의 시선으로 보통사람들이 전쟁에서 겪는 참상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주트너는 이 소설을 통해서 전투현장과 야전병원의 끔찍함, 고향에 군인의 가족들의 고통, 전쟁 후 전염병의 창궐, 그리고 전쟁에 도취된 사회의 광기를 보여

줍니다. 이 작품으로 그녀는 유럽 전역에 평화의 필요성을 전파합니다. 이 소설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유럽에서 20만부 이상 팔렸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주트너는 본 작품을 통해서 전쟁을 선동하고 피와 눈물의 희생을 요구하는 군국주의자들의 기만을 폭로했습니다. 군국주의자들의 아욕 때문에 전 유럽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의 폭로에 전 유럽이 움찔했고 반전 정서가 유럽을 휘몰았습니다. 그래도 그녀의 일갈에 유럽이 정신을 차린 것은 당시 유럽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호소했던 주트너의 일갈을 듣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광기를 부리는 북한의 정권과 군부들에게도 주트너의 일갈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제발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주트너의 메시지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위를 빙자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녀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쟁투를 일삼고 폭력을 행하며 상처를 남기는 자들에게도 주트너의 일갈을 전합니다.

6월을 보내며 소설 “무기를 내려놓으라!”를 다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언어로, 눈길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6.25 전쟁도, 6.10항쟁도, 6.29선언도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메시지를 품은 6월이 저물어 갑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자,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킴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강순영 목사의 부흥을 사모하며

(8) 찰스 피니와 제2차 대각성운동

미국의 제2차 대각성운동 기간에 가장 활발하게 쓰임받은 인물은 찰스 피니였다. 피니는 전도자, 부흥사, 목회자, 신학교수와 학장, 저술가, 사회개혁자로 19세기 전반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피니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다. “저는 무지와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고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저를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모든 사역의 열매들을 그분의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다시 기회들이 주어 진다해도 40여년이 넘도록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일에 다시 쓰임 받고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운동사에 피니만큼 칭찬과 함께 비판도 많이 받았던 부흥운동가도 없었다. 그의 구원관과 부흥론은 칼빈주의자들로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학적 문제점을 비판 받고 있다.

찰스 피니(Charles Grandson Finny, 1792- 1875)는 DL 무디보다 55년 앞서 1792년에 케네디컷 주의 리치필드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뉴욕 주 오네이다로 이사했다가 예일대학 준비를 위해 케네디컷으로 되돌아와 고등학교를 마친 후에 뉴저지에서 잠깐 교사생활을 했다.

26세 때 뉴욕 아담스에 있는 벤자민 라이트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제로 들어가 법률 공부를 시작하며 소송사건을 다루었다. 법률서적을 읽다가 모든 법들이 성경을 기초로 한 것을 발견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된다.

그의 회심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방식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결

단해야 했다. 그는 구원문제를 결판 짓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로 결심하고 29세가 되던 해에 마을 북쪽에 위치한 숲 속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렘29:13)는 말씀이 그의 마음 속에 들어와 그 마음에 가장 깊은 영적 환희를 경험하게 된다. 그날 밤에 사무실 방으로 돌아와 기도하다가 강한 성령의 세례(충만)를 체험한다.

“성령께서는 나의 몸과 영혼을 꿰뚫고 지나가는 것 처럼 나에게 임하셨다. 그것은 마치 전류처럼 내게 흘러왔고 사랑의 파도와도 같았으며 하나님의 숨결 같았다.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에 번져왔기에 나는 말할 수없는 사랑의 감격으로 인해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라고 그날의 감격을 고백했다.

다음 날 아침에 그 마을 교회 집사가 찾아와 그날 오전에 있을 자기의 변호건을 상기시켜 주자 피니는 “집사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변호를 의뢰 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소송 건은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새로운 인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토록 좋아했던 변호사 일이나 돈 버는 일에 흥미를 잃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일의 중요성과 어떤 것보다 바꿀 수없는 영혼의 가치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다.

신학교 대신 성령의 기름부으심

그는 기성 신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기에 신학교육 대신 프린스턴 출신인 담임목사 조지 게일의 지도하에 게일목사 서재의 책들을 빌려보며 공부한 후에 1824년 32세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된다 (어떤 기록에는 프린스턴을 비롯한 여러 신학교에 원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게일 목사의 칼빈주의 인간관과 구원관에 반발했고 구원을 위한

인간의 결단을 중시하는 견해를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일반 목회자들의 근본적인 결함이 성령의 기름부으심의 결핍이라고 보았다. 사도행전 1:4-8 말씀대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성공적인 목회사역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평생 성령세례를 중시했고 강조했다.

피니의 부흥사역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뉴욕 서부 지역 여성교회의 부탁을 받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성령계 사모잡힌 피니의 열정적 설교로 그 지역 공동체가 영적 각성으로 타올랐다. 집회가 열리는 곳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 사람들이 나동그라지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다.

뉴욕 중부에 있는 로마에서는 20일간 집회가 진행되었는데 강력한 회개의 역사와 함께 로마의 모든 주민이 예수를 영접했고 온 도시가 성령의 임재로 가득했다고 한다. 그의 명성이 소문나자 뉴욕, 어번, 버팔로, 로드아일랜드, 필라델피아, 로체스터, 보스턴 등의 지역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된다. 그가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죄인들은 두려워 떨었고 회개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 그가 지나가는 도시마다 수백명, 수천명의 새신자들이 교회에 등록했다.

피니는 자신의 회고록에 자신이 인도했던 부흥회에 나타났던 특징들을 “능력 있는 기도의 영이 강하게 나타났고, 자신들의 죄를 깊이 깨달았으며, 사람들이 갑자기 아주 강하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고 회심한 자들에게 굉장한 사랑과 기쁨이 충만했으며, 회심자들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이들이 매우 진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였다”라고 기록했다.

1835년에는 오하이오에 새롭게 설립된 오벌린대학 교수로 초빙되어 신학을 강의했다. 1851년에는 오벌린대학의 학장으로 승진되었다. 30년 동안 교수생활을 통해 다음 세대들을 부흥으로 준비시켰다. 영국에도 두 차례의 방문사역을 통

해 웨일즈와 런던에도 큰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기도 했다.

피니 부흥사역의 특징들

1. 도시에서 집회를 열기 전에 도시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도팀을 만들어 기도로 준비하게 했고, 그룹별로 가정들을 방문해서 전체 공동체를 전도집회에 동원했다.

2. 그의 설교의 특징은 말씀에 의지해 “변호사적인 설교”를 했다. 열심히 주님을 변호했다.3. 그의 사역 기간 중에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을 구했고 기도를 강조했다. 당시에는 남자에게만 회중기도의 기회를 주었는데 피니는 여자들에게도 처음으로 회중기도의 기회를 주었다.

3. 예배석 앞부분에 구도자 좌석을 만들어 놓고 예배 전이나 예배 중간, 예배 후에 구원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로 나와 결단하고 상담을 받도록 했다. 전도집회 시간에 결단하고 앞으로 나오게 하는 시간을 꼭 가졌다.

4. 회개의 증거로 죄에 대한 고백과 변성을 강조했다. 회개회개 회개를 위해 충분한 기도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집회 기간 동안 온갖 죄악들이 자백 되었고 많은 액수의 돈이 변상되었다.

5 그의 마음은 평생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있었다. 그의 사역을 통해 25만- 50만명이 회심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회심한 사람들의 85%정도가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고 전해지고 있다.

6. 그의 부흥운동의 결과로 노예제도 폐지, 여권 신장, 금주 운동 등의 수많은 사회개혁이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그를 통해 회심한 자들이 노예제도 반대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7. 특히 그의 구원론과 부흥론은 알미니안 신학에 기초했기에 칼빈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고 지금도 공격을 받고있다

인간의 죄성과 원죄를 강조했던 에드워즈와 달리 피니는 인간에게는 복음을 듣는 자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

으며 그것은 자신의 결단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인간의 책임과 결단을 강조했다.

에드워즈는 부흥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라고 보았고, 피니는 우리가 원하고 조건만 갖추면 언제든지 부흥은 일으킬 수있는 것으로 보아 부흥을 촉진시킬 수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고안했다. 철저한 회개, 복음전파, 기도의 실천을 통해 부흥을 일으킬 수있다고 주장했다.

피니는 “당신들이 왜 부흥을 체험하지 못하는 줄 아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 즉 당신이 부흥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으며 그것을 위해 별 노력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쓴 부흥론에서 질책하고 도전하고 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피니의 부흥론을 수용하고 있다.

평생 부흥을 사모했고, 자신의 무지와 무력을 인정하며 기도로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구했던 피니를 통해 수십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주님! 오늘날도 그렇게 부흥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사모잡히기를 구하는 세대들을 일으켜 주소서.

부흥을 사모하는 작은 종 강순영 목사



강 순 영 목사
JAMA대표
청교도 이주 400주년
준비위원장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C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issions@aeu.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l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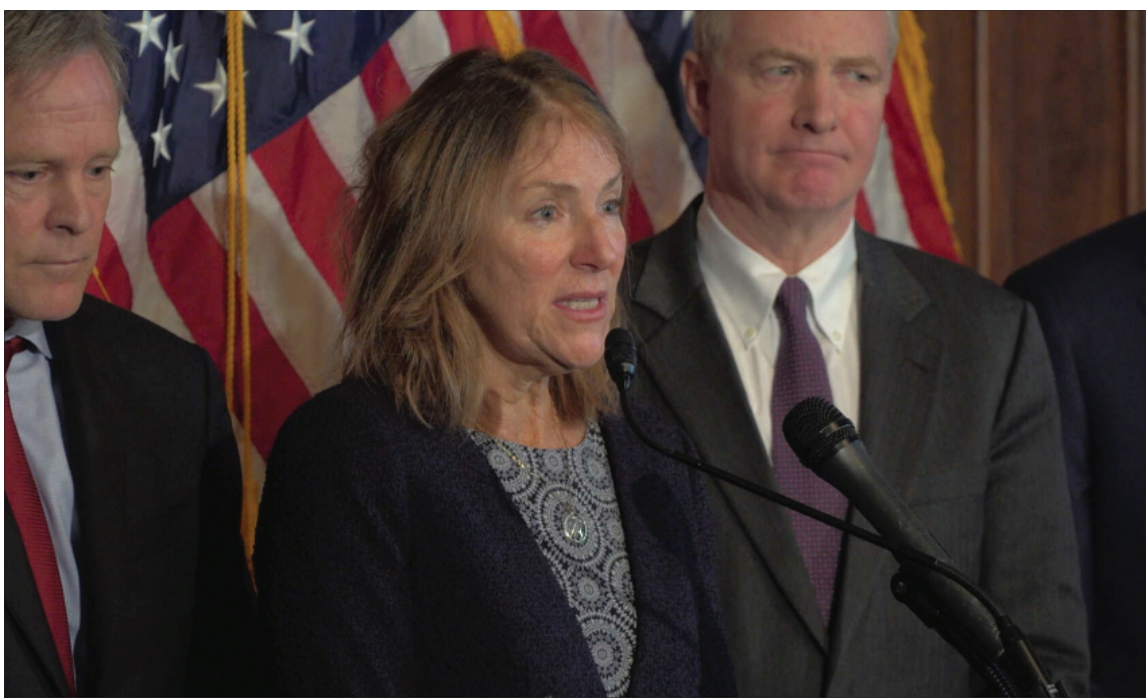
美상원, '웬비어 3주기 추모 결의안' 채택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만장일치’로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웬비어의 사망 3주기를 추모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채택됐다. 미국의소리(VOA)는 “미국이 유엔에서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 정권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웬비어의 사망 3주기를 추모하는 결의안은 18일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은 웬비어의 기일인 6월 19일을 하루 앞두고 속성 절차를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본회의로 회부돼 상정 이틀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을 상정한 톱 포트먼 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상원의 이번 결의안 채택은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말하고, “웬비어와 북한에 불법 억류된 모든 이들에 대한 북한의



지난해 12월 미국 의회가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웬비어 군의 이름을 딴 새 대북제재법안을 의결한 가운데, 어머니 신디 웬비어 씨와 아버지 프레드 웬비어 씨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모습. ©VOA

행동과 인권 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웬비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모

가 견뎌야 할 것 이상을 겪어 왔다”며, “웬비어가 절대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웬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둔 포트먼 의원과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

은 지난 16일 이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웬비어의 죽음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 미국이 지속적으로 유엔에서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를 발의한 두 의원은 지난해 새 대북 제재법 ‘웬비어법’의 제정을 주도하기도 했던 바 있다. ‘웬비어법’은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차 금융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고 한다.

한편 상원의 이번 결의는 이런 제재들이 북한 정부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실험의 “검증 가능한 중단에 전념하고, 미국 정부를 포함한 다자 대화에 동의할 때까지” 계속 완전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국 하원에서도 웬비어 사망 3주기를 기리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홍은혜 기자

美 기독교 억만장자 칩펠레 회장 “흑인 형제 자매 위해 싸울 것”

“올해 미 대선 코로나19보다 인종차별 해결에 달려”

미국의 보수 기독교 억만장자인 칩펠레(Chick-fil-A, 미국의 유명 패스트푸드 기업) 덴 캐시 회장이 최근 애틀란타 패션시티교회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관련된 미국의 인종차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백인 기독교인들에게 “지금은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순간”이라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인종차별을 회개하며 흑인 형제 자매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크리스천포스트 17일 보도에 따르면, 덴 캐시 회장은 “올해 미국 대선은 코로나19 사태보다 인종차별 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면서 “이 순간을 놓친다면 우리의 세대는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덴 캐시 회장은 패션시티교회 루이 기글리오 목사, 크리스천 힙합 아티스트 레크레와 좌담을 나누며, 레크레에게 인종차별을 겪은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해 달라고 부탁했다.

레크레에 따르면, 그는 13살 때 처음으로 경찰에게 총으로 위협을 받았다. 그는 비무장 상태였지만,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경찰의 무릎에 등이 짓눌려지는 아픔을 겪었다. 14살 때에는 학교를 결석한다는 이유만으로 갠단 리스트에 올랐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지 못했고, 그의 어머니가 나서서 단순한 결석이 갠 활동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설명을 경찰들에게 해야만 했다고 털어놨다.

가장 최근에는 렌트카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게 차량 검문을 당했고 차 내부가 망가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그는 호소했다. 그때 당시 그는 크리스천 아티스트로서 공연을 위해 렌트카를 타고 공연장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그의 차를 멈추게 했고 좌석 모두를 밖으로 걷어내고 차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찰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차량 수색 결과 마약이 발견되지 않자 그들은 좌석을 차에 밀어 넣고 떠나버렸다.

이에 대해 덴 캐시 회장은 “이러한 수모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상상으로만 가능할 뿐”이라며 “백인들은 이러한 수모를 많이 당해 보지 않았기에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고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몇 주간 칩펠레 흑인 직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눈 이야기를 꺼내며 “기업 내에서도 인종차별에 따른 모욕과 불평등이 많다는 사실



칩펠레 덴 캐시 회장이 최근 애틀란타 패션시티교회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관련된 미국의 인종차별에 대해 언급하며 “인종차별을 회개하고 흑인 형제, 자매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YouTube/Passion City Church

을 알게 되었으며, 칩펠레 내에서도 이러한 부당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캐시 회장은 “우리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지만, 이 순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침묵은 너무나 거대하다. 지금은 침묵해선 안 된다. 누군가는 싸워야 한다. 백인들이 앞장서서 한 인류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형제, 자매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 전까지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틀란타에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고, 이를 망가지게 해서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백인들에게 ‘인종 정의를 위한 행동’을 하기 전에 ‘회개의 시간’을 반드시 가질 것을 주문했다. 그는 “무언가를 위한 행동을 할 때는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 무엇보다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며 “무엇이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는지 분명히 알고, 이 시대의 흑인들이 겪

는 좌절과 고통에 대해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칩펠레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로 미국 내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이다. 작년 기준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점유율 1위이며, 패스트푸드 체인 고객 만족지수(ACSI)에선 파네라 브레드, 치폴레, 파파존스 등 280여 개 브랜드를 제치고 87점을 받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김근혜 기자



바이러스를 죽이는 마스크가 왔다!

VK마스크 시판

특수 발효소금의 초강력 필터 개발!
마스크는 필터링이 생명!

U.S. Patent Serial No.: 88819662

VK 소금필터의 특징

바하만 청정지역에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끌어들이 진흙뻘에 1년간 숙성시킨후 4년간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자연산 천일염으로 특수코팅!
중금속 0%! 간수0%! 미세플라스틱0%! 85가지 미네랄 천일염!
특수소금필터는 호흡기를 통해 마스크에 습도가 생기면 소금분자들이 분자 분해를 일으켜 호흡기 방향으로 이동하여 보호해준다.
일반 마스크는 습도가 발생하면 박테리아균이 발생되어 장시간 사용할 수 없지만 VK 마스크의 천일염 특수 패드는 멸균과 동시에 입안에 냄새도 제거해 준다.
VKM 소금필터는 특수 코팅되어 3주 이상 사용할 수 있다. (1회 찬물에 1-2분 세척가능)
마스크 필터에는 특수소금이 코팅되어있어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접근하면 소금의 결정이 바이러스를 파괴한다.
바이러스가 사멸된 마스크는 균이살지 못하므로 재활용도 가능하다

1개 \$20

1인당 10개 한정
3주 이상 사용가능



특수 천일염 필터 마스크로 자유롭게 안전하게!

판매처

 VK 마스크 특수필터는 코셔미네랄 천일염 소금연구소 제공.
KoshreMineralSeaSalt.com

 **100% HANDMADE
MADE IN USA**

 **VKMask.com
Virus Killer Mask
VKMask, Inc.**

Space Eum Cafe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213.386.3896
213.605.2772**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세계각국 및 지역 대리점 이메일로 접수: info@vkmask.com

美 남침례교 역사상 최초 흑인 실행위원회 의장 선출



©롤랜드 슬레이드 목사 페이스북 캡처

미국 캘리포니아 엘 카혼에 소재한 페리디안 침례교회 담임목사인 롤랜드 슬레이드(Rolland Slade) 목사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의 첫번째로 미국 남침례교(SBC) 총회 실행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17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남침례교 교단지인 뱀티스트 프레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슬레이드 목사는 뱀티스트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 자리에 앉을 계획이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사랑하신다고 믿는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다양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나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소감을 말했다.

남침례교는 흑인으로서 유일하게 프레드 루터(Fred Luter)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후 8년만에 슬레이드 목사를 실행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한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 슬레이드 목사가 만장일치로 투표에 의해 선출됐다고 한다.

프레드 루터 목사는 뱀티스트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롤랜드 목사는 피부색 때문이 아니라 수년간 집행위원회의 일원으로 지식, 기술 및 리더십을 갖추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명예를 얻을 만 하다”며 “남침례교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 준 롤랜드 목사와 실행위원회 위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길 원한다”고 말했다.

조지아 주 블랙쉬어에 소재한 임마누엘 침례교회의 마이크 스톤 목사는 “인종적 불평등과 경찰관의 잔인함으로 시민들이 항의시위를 벌이는 이 때, 이같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며 “남침례교단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모두 주님의 섭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침례교 총회장 J.D.그리어(Greear) 목사는 슬레이드 목사의 선출에 대해 “롤랜드 슬레이드 목사의 당선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SBC 총회장으로서 2년 동안 저는 롤랜드 목사와 함께 일하면서 우리 교단을 이끌 수 있는 그의 리더십과 인격을 보았다”고 말했다. 앞서 그리어 목사는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의 사망으로 미 전역에서 일어난 항의 시위와 함께 남침례교인들이 인종 차별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로 바라볼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우리는 특히 이번과 같은 순간에, 우리의 유색인종 형제, 자매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께서 그들 공동체에 적어 두신 리더십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 특히 유색인종 형제 자매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SBC 총회장 연설에서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운동(movement)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경 기자

美 복음주의 교회 다수 “코로나19에도 헌금 액수 증가”

다수 미국 복음주의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 4월에도 헌금 액수가 증가하거나 유지됐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복음주의 재정책임위원회(Evangelical Council for Financial Accountability, ECFA)가 최근 조사한 결과 보고서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ECFA는 2020년 4월 총 헌금 액수 합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한 교회의 66%와 기독교 비영리 단체의 59%가 지난 2019년 4월 총합과 비교해 동일했다고 밝혔다.

팬데믹이 아직 확산되지 않은 2020년 1월과 4월의 헌금액수와 비교한 변화 추이에 대해서는 응답한 교회의 72%와 비영리 단체의 61%가 지난 1월보다 증가했거나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5월 12일부터 27일까지 복음주의 교회와 비영리 단체의 지도자 1천 34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CFA 리서치 담당 부책임자인 워런 버드(Warren Bird)는 설문조사 보고서에서 “지난 1월 문서를 기록된 낙관론이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응답 교회의 69%와 비영리 단체의 46%가 향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헌금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전도 사역 단체의 62%는 향후 헌금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밝혔으며 교육 사역 단체는 응답자의 29%만이 낙관적이라고 전했다.

이 연구는 또한 온라인 헌금이 교회에서 증가했지만 비영리 단체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응답 교회의 64%가 온라인 헌금이 증가했지만 응답자

운데 34%는 변화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설문 조사에 응답한 대부분의 교회와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통해 대출을 신청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폐쇄에 처한 소규모 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돕기 위해 운영됐다. 대부분의 교회와 비영리 단체는 향후 3개월 간 직원 수준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버드 부책임자는 “여름 캠프, 학교, 단기 선교 및 단기 여행과 대규모 개인 모임이 포함 된 다른 사역은 여전히 거칠고 불확실하다”며 “그러나 이 보고서의 응답은 현재까지 팬데믹의 영향을 합리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 연합 감리 교회(UMC)는 지난 4월 헌금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UMC 교단 재무 및 행정위원회(GCFA)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폐쇄기간이었던 4월 한달간 헌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감소한 수준이었으며, 2017년에 비교해서는 45%가 낮았다.

헌금액 감소의 또 다른 요인은 ‘성소수자(LGBT)’에 대한 교단 내 입장 차이도 있다. UMC는 최근까지 동성애가 기독교의 가르침과 공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내부적인 논쟁을 이어왔다.

UMC는 2019년 2월, 정기 총회 특별회의에서 동성애에 대한 현재의 전통적 입장(present traditional stance)을 재확인하자, 교단 내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기부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경 기자

교회혁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오전 11:00
오전 7:00
오전 7:00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대예배) 오전 9:30
3부예배(자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2세대를 영입하며, 이민가정을 지원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son 교차)
T. (213) 386-2233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 북동쪽 9번지)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리츠에이델린에(소매방)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하는 주교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젖고, 차용과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산타모니카 만리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유지부 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삶이 되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d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월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c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영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0:00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금)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가톨릭)미사(매주) 오후 8:00
종교기도회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Sunday Service: 2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10:15, 오후 12:45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 (818)882-9777 www.churchmann.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MP예배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수요일 성경공부 오전 10:00, 2부 예배 오후 1:30
수요일 성령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584 Rhoads St., Northridge, CA 91329
T. (818)935-5887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교동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지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어,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경대원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웅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m.com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공산 국가들에 사는 사람, 지금도 30억 명 넘어”



지난번 한국순교자의소리가 개최한 「마르크스와 사탄」 출간 기념회 모습

한국 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이하 한국VOM)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정릉 사무실 벽에 설치된 순교자 연대표에 '공산주의 치하에서 희생된 무명의 순교자'를 기념하는 명판을 걸고, 한국 기독교인을 위한 교육 자료 '공산주의는 죽지 않았다(Communism Is Not Dead)'를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VOM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고든콘웰신학교(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세계기독교연구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Christianity)는 무신론과 마르크스주의 체제 아래서 기독교 믿음 때문에 살해된 사람이 1921년부터 현재까지 2,500만 명에서 3,0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며 “6월 29일은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를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치하에서 희생된 무명의 순교자’를 기억하기도 적절한 날이다. 또한 우리는 기독교인을 모질게 핍박하는 공산 국가들에 사는 사람이 지금도 30억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나라들에서는 지금도 순교자들이 계속 목숨을 바치고 있다”고 했다.

한국VOM에 따르면,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공산주의 국가는 중국, 베트남, 라오스, 북한, 쿠바 이렇게 다섯 개 나라이지만 공산주의 사상은 인도와 네팔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인도에서는 공산주의자 집단을 '낙살라이트(Naxalite)'라고 부른다. 이 명칭은 인도 북동부에 위치한 '낙

살바리(Naxalbari)'라는 마을에서 유래했는데, 이 마을에서는 1960년대 후반에 시민 봉기가 일어났다. 낙살라이트는 자신들이 인도 사회의 극빈자 계층, 특히 힌두교가 지배하는 그 나라에서 사회 계급이 매우 낮거나 계급 자체가 없는 이들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Eritrea)도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국가 목록에 포함해야 한다고 현숙 폴리 대표는 말했다. 그녀는 “에리트레아의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Isaias Afwerki) 대통령은 문화대혁명(Cultural Revolution, 1966-1976)이 일어나는 동안 중국에서 유학하면서 마오쩌둥 주석의 강압적 통치 방식을 그대로 흡수했다. 본국으로 돌아온 아페웨르키는 마르크스주의 혁명운동을 조직했다”며 “에리트레아 인민해방 전선(Eritrean People's Liberation Front)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나중에 '민주정의 인민 전선(The People's Front for Democracy and Justice)'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또한 아페웨르키는 에티오피아에서 독립하기 위한 30년 전쟁에 참전했다. 1993년, 에리트레아가 독립했을 때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다. 에리트레아 기독교인은 오늘 이 시간에도 가혹하게 핍박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 수감자 중에는 낮에는 쥘 듯이 덥고 밤에는 얼어붙게 추운 환경에서 선박용 컨테이너에 갇혀 지내는 이들도 있다. 2019년, 에리트레아 정부는 기독교인을 수차례 급습해 500명 가량을 체포했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코로나19 청정국 뉴질랜드...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나?



전국적인 폐쇄 조치가 내려진 기간인 지난 5월 뉴질랜드 오클랜드 세인트 매튜 인 더 시티(St Matthew-in-the-City) 성공회 교회에서 예배를 녹화하고 있다. ©세인트 매튜 인 더 시티교회 페이스북 캡처

지난 8일 마지막 코로나19 환자가 회복돼 격리 해제되면서 코로나 청정국을 선언했던 뉴질랜드는 모든 공개적인 모임에 대한 제한을 해제했다.

21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뉴질랜드 몇몇 교회를 인터뷰하고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보도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3월, 뉴질랜드는 해외 여행 금지와 대규모 모임 금지 등 폐쇄 조치를 시행했다. 뉴질랜드의 폐쇄 조치에는 교회도 포함됐다.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4단계 국가 경보 시스템을 발동했다.

지난 3월 25일 네 번째 단계가 지정되자 '봉쇄령'(lockdown)이 내려졌다. 이 단계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를 폐쇄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 조치는 지난 8일 1단계인 '준비'(prepare) 단계로 들어서면서 사실상 해제됐다.

오클랜드 감리교 중앙 교구의 이언 포크너(Ian Faulkner) 목사는 “모든 감리교 교회 예배가 정부 폐쇄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중단됐다”고 CP에 말했다.

포크너 목사는 “오클랜드 감리교 중앙 교구의 대응은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가상 교회 예배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종려주일부터 6월 7일까지 예배가 11번 드

려졌다”면서 “평신도들에 의해 운영된 전화 연락망을 통해 교인들의 상황과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점검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언어인 피지어와 영어로 현장 예배가 최근 드러졌다.

오클랜드의 성공회 교회인 '세인트매튜 인터시티'의 헬렌 야코비 목사는 “코로나19 폐쇄조치로 모든 활동이 제한됐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서 “웹사이트,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미리 녹화된 주일 오전 예배를 올렸다. 매주 주일 화상 회의를 열고 소식을 나누고 주간 독서를 소그룹으로 나누었다”고 밝혔다.

야코비 목사는 온라인 예배 영상 시청률이 좋았다면서 현장 예배를 방문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시청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야코비 목사는 CP에 “정상적인” 예배 환경으로 돌아왔을 때, 교인들은 마침내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뻐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2단계로 폐쇄 조치를 완화했을 때에도 교회는 음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거리 두기를 실시하는 등 예방 조치가 포함됐으며 전체 건물은 전문적으로 방역했다고 한다.

이미경 기자

한국 선교 개척자 조동진 목사 별세

향년 97세... KWMA 추모게시판 마련

한국 선교의 개척자이자 거목으로 불리는 조동진 목사가 19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7세.

1924년 평북 용천에서 태어난 조 목사는 장로회신학교, 미국 에즈베리신학신학교 대학원(석사), 미국 윌리엄캐리대학교 대학원(박사)을 졸업했다. 이후 서울 후암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했다.

1963년 국내 최초로 선교대학원인 동서선교연구개발원(EWC)을 세웠고, 같은 해 초교파세계선교단체인 국제선교협력기구(KIM)를 설립했다. 또 아시아선교협의회(AMA)와 제3세계선교협의회(EWC)를 창립하고 회장을 지냈다.

이 밖에 김일성종합대학교 종교학과



조동진 목사

초빙교수, 평양 신학원 초빙교수를 지냈으며 '조동진선교학 연구소'를 설립했다. 지난 1974년 제1회 로잔대회 강사로 나서 선교구조 쇄신을 역설하기도 했다.

고인의 빈소는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지하 1층 3호실(일원동)이며, 입관예배는 20일 오후 4시 지하 1층 영결식장에서 진행된다. 발인은 22일 아침 7시, 장지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 선산이다.

한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홈페이지(kwma.org)에 고인에 대한 추모게시판을 마련했다. 김진영 기자

김장환 목사

“자유민주주의 위협받고 있다”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미래통합당 기독교회가 1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6월 조찬기도회를 겸한 제21대 국회개원감사예배 및 정기총회를 열었다.

송석준 의원(미래통합당)의 인도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선 김기현 의원(미래통합당, 울산대안교회 장로)이 대표기도 했다. 그는 “에스더의 마음을 기억해서 기독교 정치인들이 기도하면서 힘을 합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소서”라며 “우리가 게을렀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본질적 노력을 외면했다. 오만한 폐습을 버리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기독교 정치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이어 김숙향 의원(미래통합당 기독교인회 부회장, 여의도순복음교회 집사)가 전도서 3장 1-8절을 봉독했다.

설교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식물인간이 된듯하다. 조 맥키버 목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10가지’를 전했다”며 이 중 5가지를 말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우리는 정치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작은 자,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치 현실은 분명 냉혹하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힘이 없는 게 아니다. 유독 정치 세계에서만 맥이 없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뜻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역사를, 인류를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했다.

그는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나왔다. 미래통합당에 지금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며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차민규 선수는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쳤다. 기자들로부터 ‘0.01초 차이란?’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차민규 선수는 ‘짧은 다리’라고 답했다. 4년의 훈련이 허망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0.01초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온 선수”라고 했다.

이어 “한 순간, 한 순간 보내는 시간의 의미가 소중하다. 0.01초를 허비하는 사람은 1초 그리고 전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다. 국회의원 여러분의 승패도 이런

짧은 시간”이라며 “에베소서에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승자는 하루 25시간을 사용하고 패자는 13시간을 사용한다. 시간의 배뺨을 안다면 이제는 인생을 아는 것”이라며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은 성공하고 가치 있게 산다. 나에게 허락된 제한된 시간은 귀중한 보물이다. 돈도 재산도 돌아오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김 목사는 “내게 8만 6,400달러가 들어온다면 하루도 못쓰고 예금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루 8만 6,400초가 주어졌다”며 “시간은 달러보다 훨씬 중요하다. 돈의 예금은 가능하지만 시간의 예금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간처럼 인간의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대한민국을 사랑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은 시간을 갈망한다. 시간 가는 것을 몹시 아쉬워한다.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대한민국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보우하신다. 나라를 사랑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히틀러가 유럽을 장악할 때도 처칠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다시 영토를 되찾았다”며 “미국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니까? 남쪽 편에 계시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 때 그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링컨은 전쟁에서 자신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고 했다.

김 목사는 “대한민국에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는가?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식물인간이 됐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몸을 던질 때”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미래통합당, 이웃, 나라를 사랑할 때가 지금이다. 경제, 교육, 외교, 국방,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나폴레옹은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계를 지배했다’고 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세계를 움직일 힘은 사랑뿐’이라고 했다”며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하다. 곳곳에서 사랑 없어 탄식소리 뿐이다. 나 하나 희생해서 이웃이 잘살고 대한민국이 잘 된다면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어서 하자”고 강조했다.

이후 참석자들이 합심으로 기도했다. 먼저 서정숙 의원(미래통합당, 할렐루야교회 권사)은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나라를 사랑하고 겸손히 국가를 섬기게 하소서. 국회의원들이 협치 정신을 이뤄가게 하소서. 어려울수록 기도의 힘을 믿는다”며 “국민의 행복, 사회의 행복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이 있다. 공의가 흐르고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했다.

최공열 의원(미래통합당기독교인회 실무부회장, 늘푸른교회 장로)은 “국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등 국민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길 믿는다”고 기도했다.

김진영 기자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KM 청년예배 오후 2:00

세백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주남일에 드러질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바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세백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韓語)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점예인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세백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세백예배 오전 6:00
대형찬양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세백예배(월-토) 오전 6:00(토)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토)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세백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으로 활달한 생애를 위하여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세백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우 받기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원생부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어진 사랑의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세백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목요제네예배 : 오후 7시
세백기도 : 오전 6:00(화-금)
셀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세백기도회 :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세백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운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주) /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회 오전 9:00(토) / 세백기도회 오전 6:00(화-토)

김일권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5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벌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부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시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찬양예배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원생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FAM에 오전 11:30(청년 영어)

EM 예배 오전 1:30(청년 영어)
세백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정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2: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세백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 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세백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0 여름학기 강의시간표

요일	시간	과목	교수
Mon	PM 7:00 - 9:00	설교학	Dr. Jong Kim
Tue	PM 7:00 - 9:00	로마서	Dr. James Lee
Wed	PM 8:30- 10:30	사무엘상,하	Dr. Timothy Song
Thu	PM 7:00 - 9:00	현대신학 II	Dr. David Lee
Fri	PM 8:30- 10:30	현대교회사	Dr. Daniel Min
Sat	PM 7:00 - 9:00	청교도 신학과 신앙	Dr. Elijah Kim
Sun	PM 7:00 - 9:00	조직신학 I	Dr. Elijah Kim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 신학학사과정 (B.Th) | 128 학점
- 목회학석사과정 (M.Div) | 96 학점
-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학위과정)*

개강일자 : 2020년 6월 22일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은혜의 능력으로 사는 삶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이 말씀에서 요점은 분명하다 그 요점은 바로 “참된 거룩함 가운데 행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 즉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할 때 만 주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다. 여기서 “이르지 못한다”는 그리스어로 “후스테레오(hustereo)”라는 단어인데 성경 사전에서는 “열등하다, 못 미친다, 뒤처지다, 궁핍하다, 실패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 행하여 거룩함의 참된 열매를 맺으면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거룩한 대로로 길을 수 있는 능력을 줌을 말씀하고 계시다.여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은혜는 무엇이고 은혜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아무리 건강증이 심해도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날마다 우리를 이제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는 “에베에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붙들어야 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러해야 우리의 신앙이 과선하여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적의 존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자신은 죄의 소욕을 의지적으로 반복하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협력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은혜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존재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믿으면서도 현실에 삶에서는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은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에 교훈을 붙들고 이제부터 주님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히브리서 4:15-16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삶에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을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한 삶에 도전은 우리에게 많은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거룩함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

이에 대하여 우리는 은혜의 능력을 의지할 때 비로써 자신의 사고와 육신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그렇다 참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도전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말씀하길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피 흘린 아버지와 용사에게 감사를 보냅니다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국이라는 출생의 비밀은 어려운 나라를 도와야 하는 사명감을 고취시킵니다. 전쟁을 통해 최악의 참상을 경험하고 극복한 우리가 이제는 고통 중에 있는 열방을 위로하고 복되게 할 “상처받은 치유자”(wounded healer)가 된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분단과 해방은 하나님께서 주변 강대국을 사용하심으로 결정하셨습니다. 6.25전쟁을 통해 분단은 고착되었지만, 국제연합(UN)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피로서 지켜진 대한민국은 세계를 위한 공헌으로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한국전쟁은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을 가장 모범적으로 드러나게 한 기원이 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한반도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최전선이자 국제정치의 단층대(fault line)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진영의 첨단에서 북한은 공산진영의 전위로 대리전쟁을 했습니다. 전후 70년간 남북은 이념과 체제경쟁을 해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경쟁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앞에서 완승을 경험하였고 이 열매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한국전쟁은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 활동을 하도록 기초를 부여한 영적 부흥의 기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념과 체제의 대결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는 물론이고, 신앙의 차원에서 큰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외형적으로 옷자란 교회의 미성숙함이 종종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만, 아직도 선교사의 파송과 발전된 문화의 세계적 나눔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국가나 교회는 피를 통해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는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피를 흘리겠다는 결단 없이는 나라를 지킬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도의 순교적 피가 없이는 교회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은 피흘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아버지들과 용사의 헌신이 응결된 고귀한 자취입니다. 그 위대한 용사들이 속속 사라져가고 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1980년 6월, 동부전선 최전방에 배치를 받았었습니다. 1년간 소총중대 화기소대장으로 철책에서, 또 다른 1년은 수색대대 소대장으로 GP장과 수색정찰 인솔자로 비무장지대를 경험했습니다. 분단의 현장을 오가며 저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민족에게 이 비참한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같은 혈육은 무엇을 위해 잔인하게 싸웠나?” 그리고 다시 40년이 흘러 6.25전쟁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아픔 속에서 찾아낸 감사의 의미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스스로 지킬 수 없었던 나라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잠언 21:31). 70년 전 우리는 싸울 국력이 없었고, 강대국 사이에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남침을 당한 우리는 오직 “절대 타자”(Absolute Other)인 하나님과 국제연합(UN) 우방국이라는 다른 타자(others)에 의해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유엔의 도움으로 지켜진 대한민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사회계몽운동 - 절제(節制)운동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하였다 하며 충남 공주에 갓을 세우는데 역시 금주 강연을 흔바 그 디방에 술 먹기로 유명한 W사롭이 회개하고 연보를 거둘 때 도 가장 만히 동정하였다더라.”

이 금주운동에 특히 적극성을 보인 교회는 구세군이다. 구세군은 창설 때부터 사회악의 척결을 목표로 세운 것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협력했다. 그들 기관지 「구세공보」에 금주 호를 특별히 제작하여 살포하고 악대를 동원하여 가두에서 계몽운동을 전개했다.

교회가 금주운동을 전개하는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일은 미성년자들에게 술과 담배를 금하는 법령을 만드는 일을 성사시킨 것이다. 1932년 12월 범교단적으로, 그리고 사회 지도자까지 망라하여 총독부를 상대로 미성년자 음주, 즉연 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마침내 1938년 4월 ‘청소년 보호법’을 만들 때,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교회가 벌인 금주운동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1931년 「신정 찬송가」 출될 때 임배세(林培世)가 지은 ‘금주가’가 정식 찬송가로 채택됐다. 당시 많이 불렸던 금주가의 내용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금주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패가망신될 독주는
빛도 내서 마시면서

자녀교육 위하야는
일 전 한 푼 안 쓰려네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수양 늘 식하면
동서문명 잘 빛내리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의 독기 받지 말고
국가 위해 일할지라

후렴 :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조선사회 복 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한국 교회의 금주운동은 널리 확산되었고 「기독신보」는 구세군의 지원으로 1년에 1회씩 금주호(禁酒號) 특집을 발간해 계몽활동에 적극 협력했다. 그러나 일제는 교회가 중심 돼 활발하게 전개하던 금주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1935년 금주 강연 금지령을 내리고 더 이상 금주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악랄한 와해공작을 자행했다.

금주 운동과 더불어 금연운동, 금아편운동도 지속적으로 퍼 나갔다. 이 운동은 이미 초창기 선교사들에게서 비롯됐다. 주한 미국 공사를 지냈고 후에 주(駐)뻬테르부르크(Petersburg) 대사를 지낸 록웰(W.W.Rockwell)이 한국의 내륙 지방을 여행하고 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은 한국인들이다.”라고 술회한 일이 있었다. 선교사들은 가난하여 굶어

죽는 이들이 많은 때 어디서 돈이 생겨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하며 금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담배를 과히 먹는 사람은 여러 가지 병이 있나니 힘줄이 약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염통이 더 벌떡 벌떡하고 수전증이 나고 안력에 대단히 해롭고 여러 가지 병이 많으니라.”고 기술하여 흡연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가를 일깨우고 있다.

1903년 감리교 연회록에 절제와 사회개혁 프로그램에서 담배와 권련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직분을 맡은 자는 절대로 담배나 권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직분을 맡지 않은 교인의 담배와 권련 사용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저지해야 한다.

한 일본인은 조선을 망하게 하는 몇 가지 가운데 흡연을 지적하면서, “한국인들이 걸으면서도, 일하면서도, 말하면서도 긴 담뱃대를 놓지 않는 데 놀랐다. 잠깐 여행하는 데도 귀중하게 두서니 대씩 담뱃대를 가지고 가는 것을 많이 보는데 그들은 그것을 마치 중요한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감리교회에서도 후에 금연운동을 전개하면서, 흡연의 해독 네 가지를 지적하였는데, ① 흡연은 신체에 해되고,……② 흡연은 총명에 해되며……③ 흡연은 도덕에 해되며……④ 흡연은 경제에 해된다.며 계몽하였다. 따라서 금연의 논리는 교리적인 것보다는 건강, 경제 등의 이유로 교회가 금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12년 장로회 창립총회 평남 노회 보고에서 황주군(黃州郡)의 각 교회에 속해 있는 계연회(戒煙會)에서는 전도인 1인을 황주군 동면(東面)으로 보냈고, 기타 전도인을 세운 일이 많다고 보고했다. 금연운동은 일본 유학생들에게까지 확대되어 동경 유학생들이 단연회(斷煙會)를 조직하고 담배를 끊고 모은 돈으로 가난한 유학생을 돕는 일을 하였다.

일제가 한국의 청년들을 피폐화시키기 위해 아편을 대량으로 재배해 피우게 하는 악랄한 정책을 펼 것 것에 대해 교회는 단호한 태도로 이를 견제하였다. 1909년 선교부는 샤희스(A.M.Sharocks), 휘팅(G.Whiting)에게 이 일을 전담시켰다. 총회 결의로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 외에 교인은 아편을 먹거나 사용하거나 아편을 심는 것, 매매를 금하고, 이를 행하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서 처리케 했다.

이효덕(李孝德)은 「절제」라는 잡지를 발간하여 금주, 금연 운동과 더불어 색옷(色衣)입기 운동을 펼쳤다.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이 흰옷을 입어 왔으나 흰옷은 쉽게 더러워지고 자주 빨래를 해야 함으로 물자, 시간, 정력이 낭비됨으로 색옷을 입어 이런 낭비를 막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당시의 유일한 기독교 신문이었던 「기독신보」에 「절제」란 고령적으로 설치하여 금주, 금연, 폐창(廢娼)에 관한 글들을 계속 게재함으로써 절제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주일제전
 공미라고
 마그네틱 텀블러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교회행사, 수련회, 단체를 위한
맞춤형 후드 티셔츠

원하시는 문구와 로고를 넣어서
 우리교회만의 후드 티셔츠를
 예쁘게 제작해보세요!

WHEN WE PRAY

그레이
 블랙
 네이비
 차콜

할인 이벤트

25개 \$19.5 (개당)
 50개 \$18.5 (개당)
 100개 \$17.5 (개당)

only \$15.99 (개당)

신앙의 눈으로 보는 6.25 전쟁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올해가 6.25 한국 전쟁 70주년입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피를 많이 흘린 가장 잔인하고 파괴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군인 민간인 수백만 명이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UN군들 역시 우리의 자유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미군 전사자가 5만4천명으로 알려집니다.

우리는 절대로 6.25를 잊어서 안 됩니다. 특별히 6.25 참전 용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소수의 생존자들이 연로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와 생명을 위해 싸워 주신 참전 용사들께 감사드립니다. 70주년을 맞아 우리 신앙인은 6.25를 통해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6.25 전쟁은 반기독교적 공산주의 확장 전쟁이었습니다.

북한은 6.25 한국전쟁을 줄곧 '북침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 옛 소련의 비밀문서가 공개되어 전 세계는 625가 '김일성기획, 스탈린과 마오쩌둥 후원의 공산주의자들의 전쟁'임을 알았습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적 무신론의 반기독교적 사상입니다. 그래서 혁명에 성공한 스탈린이 가장 먼저 교회와 성도를 탄압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정부를 세울 때 이승만 대통령 같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이념을 가진 국가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한의 개신교인은 인구의 0.52%(약10만)에 불과했지만 초대 제헌의원 190명 중 38명이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6.25는 공산주의세력이 기독교적인 남한을 삼키려 한 전쟁이었습니다.

2.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기독교인들은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기적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유엔이 대한민국을 돕고 전세가 반전됩니다.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인 유엔군의 젊은이들이 이름도 듣지 못한 한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꽃을 피웁니다.

3. 잿더미위에 복음의 기적을 꽃 피우셨습니다.

중공군개입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이 때 수많은 신앙인들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북에 있던 기독교인 지도자들과 교육받은 자들, 유능한 사업가들과 지식층들이 이때 대거 남하하였습니다

다. 대한민국의 재기와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선 이들이 이남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한 이들의 지식 사업가적 능력과 경험이 대한민국이 경제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위기와 역경이 가장 많았던 20세기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교회의 부흥 성장은 하나님의 섭리요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확신컨대 오전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고난에서 구하시고 6.25에서 공산당 손아귀로부터 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민족을 세계를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6.25는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축복된 기회였습니다.

6.25가 주는 영적 교훈



이성권 목사
신시내티 능력교회 담임
미주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장

올해는 대한민국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 되는 해이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1945년 연합군 군정으로 4개국에 분할 통치되다가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로 서독과 동독의 대립을 거쳐 1990년 독일로 재통일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7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으나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아직도 긴장상태에 있는 것이 안타깝다. 유대민족이 70년 만에 바벨로 포로에서 귀환했듯이 올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은 엄청난 피해를 남겼으나 승리한 6.25를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들이 있다.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갑자기 남침한 북한을 이길 힘도, 병력도, 무기도 없었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 전쟁 발발 하루 만에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와 3일 뒤 유엔군 참전 결의안 채택이 기적이다. 치열한 낙동강 전투에서의 위기 상황에서 300명 목사님들의 1주일 금식기도로 승리의 기적을 주시고, 적이 예상치 못했던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등등 패배에서 역전승한 것은 완전한 하나님 은혜였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삼상 17:47).

6.25는 동족상잔의 엄청난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전쟁의 고난을 딛고 세계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다. 전후의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교회가 부흥하여 선교한국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둘째, 도움을 받았음을 잊지 말라.

6.25 전쟁에 참전하여 우리를 도와준 국가는 16개국이다. 그중 미국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가장 많았다. 1,789,000 명이 참전했고, 36,574 명이 전사했다. 부상 103,284명, 실종 3737명, 포로 4439명, 총 137,250명이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국권과 자유를 위해 희생했다. 6.25는 우리 민족에게도 비극이었지만, 세계 많은 나라의 아픔을 주는 참극이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목숨 바쳐 도와준 그들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미국을 비롯한 참전 16개국 외에도, 의료 지원국이 5개국, 물자 지원국이 40개국, 휴전 후 재건 지원국이 6개국, 총 67개국이 우리 조국의 위기에 큰 도움을 주었다.

미국은 구호 양식, 구제품까지 보내 주어서 나도 어려울 때 입고 살았다. 그 은혜가 고마워 매년 6.25

참전 기념식에 참석하여 섬겨 왔었는데, 참전 용사들의 목숨 걸고 싸운 무용담을 들을 때마다 늘 감동을 받고 눈물 나게 고마웠다. 그분들의 한국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6.25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90% 정도는 될 것이다. 이미 70년 전의 전쟁이고, 또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나 1.5세대들은 6.25 전쟁을 모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6.25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사사 시대 초기에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까지 잊어버렸는데(삿 2:10),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6.25 역사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가르쳐서 비록 고국을 떠나와 살지만 애국심과 신앙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 6.25 때 받은 도움을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에게 갚아 주어야 한다.

셋째, 전쟁 재발은 막아야 한다.

한국에서 6.25 때마다 부른 노래가 생각난다. "아아 잊으라 어찌 우리 그 날을!" 부를 때마다 눈물 나고, 우리 민족의 아픔이 느껴진다. 6.25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다. 특히 북한이나 공산당에 다시 속아서도 안 된다. 그들은 거짓의 고수다(요 8:44). 사탄처럼 언제 나뉠을 본다(엡 4:27). 6.25도 미리

침략 계획을 해 놓고, 광복 5주년 기념일에 남북통일 최고 입법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해 놓고 자기를 계획대로 남침을 감행했다.

공산주의자들은 악한 영을 가진 자들이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주관자들이다(엡 6:12).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한다. 6.25 때에도 교회 핍박이 심했다. 목회자들의 순교 내지는 실종된 수가 약 400여 명에 이르고 수많은 예배당을 불 지르고 파괴하며 기독교인들을 집단으로 학살하였다. 6.25와 같은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인적 피해와 물질 피해는 다시 복구하기도 어렵다. 지금도 그들은 화해와 긴장 무드를 조성하여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만, 언제 남침을 감행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미군이 1949년에 대한민국에서 철수하고 난 후, 1950년에 6.25가 터졌기 때문이다. 태어난 조국을 떠나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늘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지고 전쟁이 종식되는 평화 통일의 그 날이 오기를 오늘도 소망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회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세례한국교회 담임목사로 사목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고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우수상, 매년 푸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우수상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회 일선상,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원봉사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장영성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열정 활동은 많은 목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소강석 저음
336면 / 13,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철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철호 목사



호남신대학교, 정호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희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신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주동신교회, 총회 간, 농어촌 부흥, 회회복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포럼, 총회사기, 호남신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동문회장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북 CBS 운영이사, 호남신학대학교 객원교수, 한남대학교 이사, 한국노인교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생명 근원이 연결되는 생명 열매

요한복음 15:5-17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요한복음 15:5-17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중략)...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7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1.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한 생명 연결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2-14절에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뿌리부터 말라죽게 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뱀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생명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님과 같은 생명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는 날 동안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셨으며 교회를 통해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체험과 감동을 통해 믿어지게 하심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육적인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고 영생복락을 목표로 새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그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면서 포도열매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내 버려지고 말라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태워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어 온전한 연합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요 15:3-4)하셨는데, 이는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철저히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아 깨끗해진 심령, 의로워진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가능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을 때, 즉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살아가야 할 때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2.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한 생명 열매

예수님의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끌리며 쓰임 받게 될 때, 우리도 살고 그 순종의 생활을 통해서 다른 영혼도 살리는 성과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 갖추기 위해 믿음으로 성장하며 영글어 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중심으로 애쓰고, 기도하며, 섬기기를 다하는 삶 속에서 필요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본문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요 15:8)하신 것은 제자는 스승을 본받아 닮아가는 것이 그 목적이기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요 15:9)라는 말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 받아 죽임 당하심으로 영생복락의 후사가 되게 하신 것은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신앙은 은혜보장을 위해 조건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목적으로 살았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내가 일러준 내 뜻대로 믿음생활에 힘쓸 수 있을 때 내 사랑이 넘치도록 보장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적 입장이 아닌 영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실 목적으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목숨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도 그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입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3.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철저한 회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라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 한 것 같이 우리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세례는 우리들의 신앙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다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물세례는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온전히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던 죄악 된 근성을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 없앤 후 예수님과 접붙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15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과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 거두실 만한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기를 소원하십니다.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주역(主役)이라는 뜻입니다. 가지는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진액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지들을 살리는 그 근원되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기대하고, 의탁하며, 순종하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형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지게 하심으로 철저히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지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영적 체질로 바꾸어지기 전에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눅 3:17)는 말씀과 같이 쭉정이가 되어 지옥 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며, 알곡이 되는 신앙생활로 영생복락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미국 신문 설교		AM131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양자 깔창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족초액 발매트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활,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족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항균, 항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게 원활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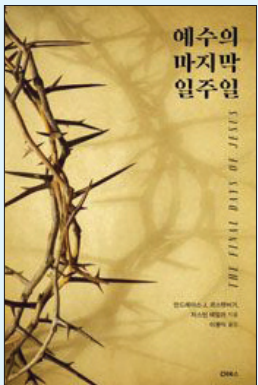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Tel. (213)703-0240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 무슨 일이 있었나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
안드레아스 J. 콰스텐버거
저스틴 테일러
이광식 역
CH북스 | 288쪽

지상에 살았던 가장 중요한 인물의 가장 중요한 일주일

예수의 마지막 주간은 충격적이지만 세상을 구원했다. 종려 주일부터 부활의 아침까지, 하루하루의 진행과 접촉이 생생하다.

이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에서부터 십자가와 최종적인 영광에 이르기까지, 독자를 예수가 걸었던 경로로 인도할 것이다.

4복음서? 여러 증언자들이 쓴 하나의 복음서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 들려준 것 새로운 창조, 옛 창조의 한가운데서 시작되다

“당신과 나는 믿는 자인가? 우리는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절은 동이 텅 났고, 하나님의 새벽 별은 우리 마음에 떠오른 것이다. 참된 신자들에게는, 모든 날이 부활절이다.”

제목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했던 2천년 전 A.D. 33년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을 자세하게 따라간다. 특히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목-금 이틀간, 그리고 빈 무덤이 발견되는 일요일 등 3일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저자들은 본격적인 서술에 앞서, 자신들의 책에 대한 기준이 되는 사복음서의 ‘신빙성’에 대해 언급한다. 하나의 권위 있는 설명을 제공하는 대신, 때로는 쉽게 조화되지 않는 네 권의 책을 왜 따로 기록하게 했느냐는 것.

이에 대해 저자들은 “초대교회는 사복음서를 네 개의 분리된 복음서들이 아니라, 네 사람의 각기 다른 증언자들에 의한 하나의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한 그 복음서(the Gospel)로 간주했다. 초대교회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며 “하나의 복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까닭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하나의 복음을 설명할 (단지 한 사람보다는) 네 사람의 증언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음서들의 본질은 목격자의 증언이다. 제각기 본 것을, 자기 자신의 말로, 자기의 고유한 관점에 따라 사건들과 진술들을 회상하면서 증언하는 법정에서의 증언자들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복음서 저

자들은 전개되는 예수의 이야기를 그들이 어떻게 목격했는지 우리에게 들려준다”며 “복음서 저자들은 인위적으로 논리정연하기 위해 설명을 줄이거나 손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자들은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들은 상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 모두 한 예수의 이야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복음을 위한 증언자들이기 때문”이라며 “복음서들이 기록되고 출판됐을 때, 여전히 많은 목격자들이 도처에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음서에 대한 신빙성에 이어, 역사성에 대한 ‘복합적 증거 기준(the criterion of multiple attestation)’과 ‘상이성의 기준(the criterion of dissimilarity)’을 내세운다.

먼저 ‘복합적 증거 기준’이란 어떤 복음서 자료가 만약 서로 의존적이지 않은 두 가지 이상의 복음서들 또는 다른 고대 출처들에서 발견된다면 믿을 만하다는 것으로, 저자들은 마태·마가·누가의 공관복음과 달리 독립적 성격을 갖는 요한 복음의 존재가 이를 충족한다는 의견을 밝힌다.

또 ‘상이성(相異性)의 기준’에 따르면, 만약 예수의 가르침과 행동을 기록한 복음서 자료가 1세기 유대교 혹은 초대교회 관례와 다르다면 믿을 만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초대교회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거나 기독교 비방자들에 맞선 대응에서 그들의 입지를 약하게 만들 자료를 조작했을 리 없다는 것.

저자들은 “사도들의 경쟁과 예수 왕국에서의 자리 다툼, 예수 체포 당시 그들의 도주, 베드로의 부인, 특히 십자가 처형 그 자체, 이 모든 것들이 얼핏 보기에는 교회가 억누르고 싶은 당혹스러운 정보”라며 “이 모든 자료가 역사적이지 않거나, 복음서 저자들이 칭찬을 얻기 만무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예수와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모습.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중

로 보존할 만큼 정직하지 않았다면, 긍정적으로 보기 힘든 그들 자신의 행동과 사람들의 반응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을 통해 우리는 2천년 전의 한 주간으로 돌아가, 시간 순서대로 예수 1주일을 만나볼 수 있고, 자연스럽게 공간적인 예수님의 마지막 동선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각 사건별 관련 성경 구절들을 4복음서를 종합해 정리해 준 다음, 해설을 덧붙이는 형태로 내용이 구성돼 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 이후 예수님의 잇따른 말씀과 성전 정화 등의 행동들은, 당시 종교·정치 지배층들이 결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예수가 현재의 통치 권력을 무너뜨리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든지, 아니면 그가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였다는 것. “당시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제3의 선택지는 없었다.”

예수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며 메시아 왕국을 거부한 채 죽임을 당했고, 그것으로 인간 그는 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저자들은 부활에 대해서도 비판자들에 맞서 나름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아래 문장이 훨씬 매력적이다.

“만약 복음서를 마태가 27장에서 끝내고, 마가는 15장에서, 누가는 23장, 그리고 요한은 19장에서 끝냈다면, 그 역시 이야기의 마무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 하지만 각각의 복음서에는 추가적인 장이 있으며,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두 장이 추가되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세상은 곧 뒤집어질 것이다. 새로운 창조가 이 옛 창조의 한가운데서 시작될 것이며,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책 곳곳마다 나오는 예수님의 동선을 중심으로 한 지도와 부록의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예수 시대의 성전 언덕’, ‘골고다와 성전 언

덕’, ‘예수의 무덤’ 등은 성지순례 없이도 2천년 전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학문적 논쟁이나 비평, 학자적 주장을 펼치기 위해 쓰여진 글이 아니라는 점이다. “복음서들을 대하는 우리의 일차적인 반응은 비평하거나 흠을 찾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는 것이다. ... 비평적 읽기보다는 은혜로운 읽기 방식이, 복음서 저자들이 서로 모순되기보다는 같은 것을 제각기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한다.”

사순절부터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이르는 기간까지 읽으면 가장 좋겠지만, 직분자라면 이 기간 오히려 차분하게 독서하고 묵상할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저자의 말처럼 “참된 신자들에게는 모든 날이 부활절”이므로, 코로나19로 바깥 활동도 교회 활동도 어려운 이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고난과 결국 이를 통해 우리를 살리신 부활의 기쁨을 더욱 깊이 누리기 위해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저자 안드레아스 J. 콰스텐버거(Andreas J. Kostenberger)는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남침례교 신학교 신약학 및 성경신학 연구주임 교수이며, 국내에는 <결혼과 가정(아바서원)>, <신약개론(CLC)>, <세상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디모데)> 등이 소개돼 있다.

저스틴 테일러(Justin Taylor)는 남침례교 신학교에서 박사학위(Ph.D.)를 받았고, 현재 Crossway의 출판 담당 부사장이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과 유산을 다룬 에세이 ‘A God-Entranced Vision of All Things, Reclaiming the Center’를 비롯한 여러 책을 편집하고 기고했다. TGC(The Gospel Coalition) ‘Between Two Worlds’에 글을 쓰고 있다.

이대웅 기자



사복음서의 저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그린 스테인드글라스.

www.marhlaw.com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은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 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벨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언제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辯護 변호

實力 실력

精誠 정성

責任 책임

信賴 신뢰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이민법
낯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분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tel. 213. 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향후 10년간 매년 수십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교통, 교육 등에 배분하는 지침이 됩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어 인터넷, 전화 또는 우편으로 센서스 인구조사를 작성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한 밝은 미래를 만드세요.

지금 인터넷

2020CENSUS.GOV/ko 에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이 광고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United States®
Census
2020